

농촌체험마을 조금씩 '기지개'...대다수는 여전히 '찬바람'

입력 : 2022-08-29 00:00

상위 10% 마을 방문객수 증가

작년보다 31% ↑ ...회복세 완연

상당수 마을은 개점휴업 상태

적자 지속 '울며 겨자먹기' 운영

소규모 프로그램 등 변화 필요



최근 방문객수가 늘고 있는 충남 아산 외암민속마을에서 학생들이 허브솔트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방문객 감소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마을은 여전히 코로나19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실정이다.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 소규모 인원도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자구 노력과 함께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찾은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마을(대표 이규정). 국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대표 격인 이곳에서는 서울지역 한 교회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중·고등학생들 40명가량은 마을이 준비한 '시골밥상'을 맛있게 먹고 달걀 꾸러미, 허브솔트 만들기 등 체험을 즐기느라 시골벽적했다. 이규정 대표는 "이런 활기찬 모습은 최근 일"이라며 "코로나19로 급감했던 방문객수가 지난해말부터 조금씩 늘더니 올 3월 들어 증가세가 본격화했고 7월에는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이 방문했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1175개 농촌체험휴양마을 가운데 외암민속마을을 포함한 상위 10% 마을의 올 1~7월 방문객수는 249만9957명으로 2021년 같은 기간에 견줘 31.1% 증가했다. 물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기(410만4216명)에 비해서는 39% 적지만 올들어 회복세는 완연한 모습이다.



임옥섭 전북 완주 안덕마을 대표가 텅 빈 찜질방을 착잡한 표정으로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권에서 아직 헤어지지 못한 마을이 대다수다. 전북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 남쪽에 있는 안덕마을(대표 임옥섭)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이 마을은 2018년 농어촌체험평가 1위, 2021년 한국관광공사 웰니스 관광지 7선으로 호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는 등 건강힐링체험마을로 유명하다. 그런 이 마을도 코로나19 이전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임옥섭 대표는 "2019년에는 숙박 예약일이 210일 정도 됐는데 현재는 그 절반인 100일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찜질방도 한달에 500만원가량 적자가 나지만 대표 체험장소라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충남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기쁨두배마을(대표 김용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배 깎두기 담그기, 고구마·땅콩 캐기 등 여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마을은 코로나19 이전 연간 500명가량이 찾아왔으나 현재는 절반도 회복하지 못했다. 김용구 대표는 "최소한의 마을 운영비 충당과 사무장 월급 지급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다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코로나19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라며 "올해 1~7월 전체 마을 방문객수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 전국 주요 관광지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데도 많은 농촌체험휴양마을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쌩쌩' 부는 이유에 대해 '변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단체 관광보다는 가족·친구 단위 소규모 관광이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했다는 것.

윤연희 태산선비마을(전북 정읍시 칠보면) 대표는 "코로나19로 단체 관광객이 현저히 줄었고 가족 단위 소규모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유인할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다"며 "숙소와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완 우리농촌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20년간 지속돼온 단체 체험객 위주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시스템은 이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소규모, 심지어 여성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농촌체험관광 시장 자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 평택에 있는 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학생 단체 위주였던 체험 프로그램을 가족 단위 테마로 변경해 2021년 매출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에 있는 또 다른 마을은 소규모 체험객이 찾기에 좋은 '치유카페'를 운영, 올들어 8월 중순까지의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연간 매출에 육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물생태, 치유·힐링, 가족 소풍, 차박캠핑 등 소규모 체험이 가능한 유형별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한마을당 1500만원(자부담 20%)이다.

아산=서륜, 완주·정읍=박철현 기자

© 농민신문사&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